

# 결혼의 의미와 변화



오늘날에는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결혼의 의미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일종의 통과의례이자 당연한 의무로 여겨졌지만, 최근 청년세대에게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의 문제이다. 즉 결혼보다는 비혼이나 동거를 선택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생의 갈림길이 될 결혼과 비혼의 결정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왜 결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랑하니까’, ‘인생의 동반자를 얻기 위해’, ‘보다 안정된 삶을 위해’ 등의 이유를 제시하지만 실제 결혼생활은 이러한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 많은 전문가들은 결혼이 실패하는 이유는 결혼에 대한 동기가 바르지 못하거나 결혼에 대해 잘못된 믿음이나 신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신에게 결혼은 어떤 의미인가? 당신이 꿈꾸는 결혼생활은 어떠한가? 당신이 바라는 결혼생활의 모습은 현실적인가? 당신이 바라는 결혼생활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장에서는 결혼의 의미와 동기, 잘못된 통념, 최근 결혼의 변화 추이, 밀레니

얼 세대의 결혼과 관련한 가치관, 비혼과 동거를 살펴보면서 결혼에 대한 개인적 의미를 숙고해 보고자 한다.

### 주제어

결혼의 의미

결혼의 동기

결혼의 통념

밀레니얼 세대

만혼, 비혼과 동거

### 함께 생각해 보기

1. 당신이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도구적인 동기가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2. 당신이 갖고 있는 결혼생활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무엇인지, 왜 그러한 통념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3. 여성 연상, 남성 연하 커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4. 최근 한국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만혼과 비혼의 원인 및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5. 국외(프랑스의 파스, 스웨덴의 동거법, 네덜란드의 동반자 등록법, 영국의 시빌 파트너십 등)에서는 다양한 생활공동체의 삶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보호와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동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동거의 장단점에 대해 토의해 보세요.

# 1. 결혼의 의미

## 1) 결혼의 개념

학문적으로 결혼은 자신이 태어나 성장한 출생가족(원가족: family of origin)을 떠나 배우자와 더불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이다(김명자 외, 2009). 흔히 '제2의 탄생'이라 일컫는 결혼은 성인남녀가 부모나 형제자매와 함께 해 왔던 원가족을 떠나 배우자와 더불어 자신들만의 새로운 가족(생식가족: family of procreation)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결혼이란 적절한 연령에 도달한 성인남녀가 이성교제와 배우자 선택의 과정을 통해 애정과 신뢰를 확인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정옥분 외, 2009). Olson 외(2014)는 결혼을 “정서적·육체적 친밀감, 다양한 과업, 경제적 자원을 공유하는 두 사람의 정서적이고 법적인 공약”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가족치료전문가이자 사회학자인 Broderick(1992, 1993)은 결혼이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 결혼은 인구학적 사건이며 하나의 사회적 단위를 만들어낸다.
- ▶ 결혼은 두 가족과 사회관계망의 결합이다.
- ▶ 결혼은 부부와 국가 간의 법적 계약이다.
- ▶ 결혼은 경제적 결합으로서 부부는 하나의 재정적 단위가 된다.
- ▶ 결혼은 가장 보편적인 성인의 동거형태이다.
- ▶ 결혼은 대부분의 인간의 성적 활동 환경이다.
- ▶ 결혼은 노동력 재생산의 단위이다.
- ▶ 결혼은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단위이다.
- ▶ 결혼은 친밀하고 공유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회이다.

이와 같이 결혼이란 두 남녀의 육체적·정서적·경제적·사회적·법적 결합을 의미한다. 결혼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하는 하나의 생활양식이자 사회제도이며

합법적인 성적 욕구의 충족, 자녀출산과 양육을 통한 가계계승, 생식행위를 통한 사회구성원의 충원, 정서적 안정과 친밀한 관계 형성 등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결혼을 통하여 개인적 욕구충족과 이에 대한 법적 승인 및 사회적 인정을 획득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의무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갖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민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참조). 우선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의하면 결혼을 통해 배우자와 가족이 되며, 상대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친척관계가 형성된다(제769조, 제777조, 제779조).

---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척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또한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항에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 결혼은 함께 살아간다는 동거의 의미가 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동거 의무이행 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이다. 부양은 경제적 부양뿐 아니라 정서적 부양까지 포함하여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부부의 일방이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심판 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서로 협조해야 할 의무이다. 배우자가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심판 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넷째, 정조의 의무이다. 이는 ‘부부간의 의무’ 조항으로 민법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의거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고 민법 제843조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만 해당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여행을 간 경우, 손가락지를 하거나 몸을 더듬는 경우, 연락 수단을 통해 애정 표현을 하는 경우, 한집 혹은 한방에서 함께 잠을 청한 경우 등도 포함한다.

---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한편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년에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를 폐지하였다. 간통죄는 2년 이하 징역과 함께 반드시 혼인관계의 중절을 전제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다면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 하고, 형벌에 의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위헌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이혼의 원인이 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형법으로 소송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반드시 이혼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제827조)이 있으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

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제832조).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부여되며 혼인 기간에 이룩한 재산은 공동 노력하여 형성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혼 시 재산분할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부부 한쪽이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상과 같이 연인이 사적인 합의로 동거하는 것과 달리 결혼은 법적으로 신고 절차를 거쳐 서로 정조를 지키며 부양 및 협조하며 연대책임을 갖는 생활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공약하는 것이다.

## 2) 결혼의 동기

일반적으로 인생의 여정을 홀로 가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결혼할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받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러한 정서적 관계를 항구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결혼을 선택한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성욕을 합법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나아가 자녀를 갖기 위한 동기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주된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기숙 외, 2001).

**사랑의 실현** 대부분의 사람이 결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결혼이라는 사회제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나 헌신, 몰입, 책임감 등을 표현하면서 서로에게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

**성적 욕구의 충족** 성적 욕구는 결혼 이외의 관계에서도 충족될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사회제도를 통해 서로 간의 성적 독점성과 다른 성적 관계에 대한 배타성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게 된다.

**정서적·경제적 안정** 대부분의 사람은 결혼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안정을 획득하게 된다. 생의 동반자인 배우자로부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정서적 안정감을 얻게 된다. 또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함께 관리하는 경제적 공동체로서 가계의 자산 증식과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통해 물질적 안정을 취하게 된다.

**부모됨의 성취** 자녀를 갖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된다. 전통사회에서는 자녀출산을 통해 가계를 계승해 나가는 것은 결혼의 중요한 동기였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출산이라는 결혼의 동기가 상당히 약화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여 자녀를 출산하고자 한다. 또는 미혼상태에서 자녀를 가지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안정적인 환경하에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결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성인으로서의 신분 획득** 한국은 법적으로 만 19세 이상 된 자를 성년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은 남녀 만 18세로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미성년이라 할지라도 혼인할 수 있다(민법 제807조). 또한 민법 제826조의 2에 의하면 미성년이 혼인을 할 경우에는 성년으로 인정하여 부모가 혼인한 미성년 자녀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역연령(曆年齡)을 기준으로 한 성년의 신분 인정 이상의 의미로 사회적 기준의 성인 신분 획득의 의미가 포함된다. 즉 결혼을 통해 사회적으로 성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부모로부터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사회적 기대의 부합**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는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이나 사회로부터 압력을 받게 된다. 최근 이러한 압력이 다소 약화되긴 했지만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성인남녀가 결혼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사회적 통념으로 존재하며, 이에 부합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혼의 일반적인 동기와는 달리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적인 동기들도 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사람에 대한 복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수단, 순간적인 열정, 혼전 임신, 상대방에 대한 동정심, 부모의 지나친 통제로부터의 도피, 불행한 가정환경에서의 탈출 등의 이유(정옥분 외, 2009)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동기들이 결혼 결심으로 작용한 경우 결혼생활의

만족감이나 안정성은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의 동기와 관련하여 향후 원만하고 조화로운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자신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와 결혼을 통해 충족하고자 하는 중요한 욕구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나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사전점검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 3) 결혼생활에 대한 잘못된 통념

통념이란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나 개념이며, 결혼생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통념이라는 것이 있다. 이러한 결혼생활에 대한 통념에는 실제 기혼자 대다수의 결혼생활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대중매체를 통해 왜곡되거나 미화된 결혼생활의 장면을 통해 형성된 잘못된 통념들이 있다. 특히 결혼생활을 실제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대중매체에 여과망 없이 노출되어 잘못된 통념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며 결혼생활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게 된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훗날 실제 그들의 결혼생활에 갈등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Olson과 Stephens(2001; 신희천 외 역, 2009)이 제시한 결혼생활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랑이 있다면 결혼생활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흔히 낭만적 사랑으로 연애 시절을 보낸 부부들은 강렬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결혼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결혼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겪는 부부들은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며, 사랑만 유지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원가족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결혼에 대한 훈련조차 안 된 두 사람이 매일 상호작용하며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사랑의 열정이라는 요소는 점차 줄어들기 마련이고, 이러한 잘못된 통념에 집착할수록 상대방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절망하게 된다. 또한 열정적으로 사랑하려



라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결혼생활의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며,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며 결혼생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배우자는 내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대체로 결혼을 앞두고 연애 중인 커플은 상대방에게 강한 성적 에너지를 느끼고 완전히 홀린 상태에서 배우자가 멋진 성적 파트너, 가장 좋은 친구, 훌륭한 양육자, 헌신적인 가족부양자, 유능한 재정지원자, 완벽한 살림꾼, 아플 때 극진한 간병인의 역할 등 나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 주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배우자는 가정에서 내 옆에만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며, 자신의 에너지를 직장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다른 가족원에게 그리고 개인생활에 나눠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욕구란 매우 다양하고 끝이 없으며, 어떤 욕구는 자신도 확실하게 무엇이 결핍된 것인지,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통념에 집착할수록 상대방과 자신에 대한 불만족은 더욱 높아지며 결혼생활에 대한 불행감을 느끼게 된다. 욕구는 상대적인 것이며,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은밀하게 마음에 품고 있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통념 중 하나이다. 위에 열거한 것처럼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리라는 잘못된 통념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배우자가 이렇게만 바뀌면 나의 결혼생활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건적 공식을 만들기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결혼 전 발견한 상대방에게서 마음에 안 드는 점도 결혼하여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그들은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지만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좌절감을 더 경험하면서 관계는 더욱더 악화된다. 단언컨대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 더 빠르게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행복한 길이다.

**“부부간의 역할은 지속되고 결혼생활에 변화는 없다.”** 많은 연인이 결혼할 당시에는 부부 둘만의 생활을 꿈꾸며 지금처럼 살면 행복한 결혼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

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사람의 인생주기처럼 형성에서 부부의 사망까지 계속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적응해 나가야 하는 발달과업이 존재한다. 또한 가족생태학적 관점에서 결혼생활은 여러 환경체계들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 예를 들어 자녀의 출산과 성장, 직업의 변화와 문제, 신체적 노화, 연로해 가는 부모님, 가족원의 죽음 등을 겪으며 끊임없이 부부의 역할은 변화하며 융통적으로 적응해 나아가야 한다. 결혼생활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건강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이 통념의 정체를 바로 알고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2. 결혼의 변화 추이

통계청(2019)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여성(43.5%)이 남성(52.8%)보다 낮았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의 비중은 1998년(67.9%)과 2008년(61.6%) 3/5 이상을 차지하던 것에서 2018년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또한 남성은 1998년 79.5%, 2008년 74.6%에서 2018년 절반 정도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반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여성(3.8%)의 비율은 남성(2.3%)에 비해 높았으며, 1998년과 비교했을 때 여성의 비율(1.6%)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에도 1998년(0.8%)에 비해 2018년(2.3%)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최근 급격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그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국인 절반이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019년 혼인·이혼 통계자료(통계청, 2020)를 바탕으로 최근 결혼의 변화 양상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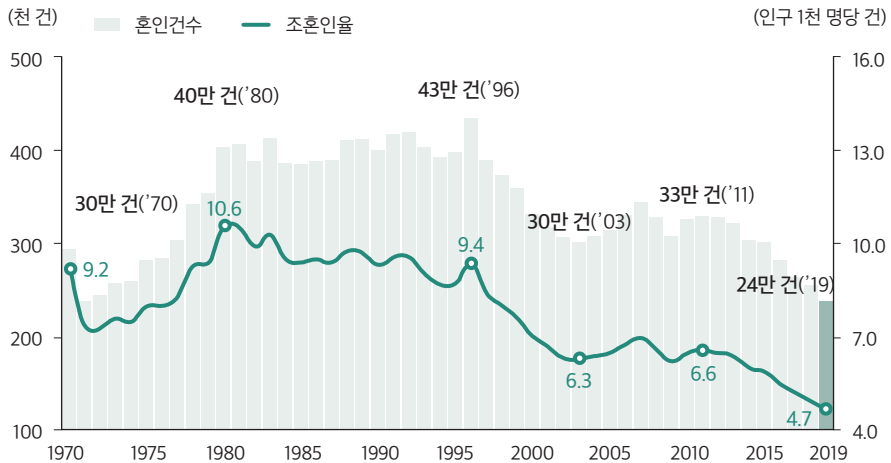
## 1) 혼인건수

2019년 혼인건수는 23만 9,200건으로 전년도 25만 7,600건에 비해 7.2%가 감소했으며, 2003년(30만 2,500건)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혼인 연령층의 혼인을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을 살펴보면 1970년 9.2건이었고, 1980년에는 10.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으며, 1996년에는 9.4건으로 다시 낮아졌다. 또한 1997년 IMF 외환 위기의 영향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3년에는 6.3건에 불과하였고, 급기야 2019년에는 4.7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그림 1.1 참조). 이러한 현상은 주 혼인 연령층인 20~30대 인구의 감소, 경제활동과 학업연장 등에 따른 만혼(晩婚)이나 자발적 독신선호의 비혼(非婚) 등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혼인연령

혼인연령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초혼남녀의 평균연령은 남자 33.4세, 여자 30.6

【그림 1.1】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1970~2019년



출처 : 통계청(2020). 2019년 혼인·이혼 통계.

【표 1.1】 평균 초혼연령, 2009~2019년

(단위 : 세)

성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증감(%p)	
												전년 대비	10년 전 대비
남성	31.6	31.8	31.9	32.1	32.2	32.4	32.6	32.8	32.9	33.2	33.4	0.2	1.8
여성	28.7	28.9	29.1	29.4	29.6	29.8	30.0	30.1	30.2	30.4	30.6	0.2	1.9

출처 : 통계청(2020). 2019년 혼인·이혼 통계.

세로 전년에 비해 양성 모두 0.2세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평균 초혼연령은 2015년에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10년 전인 2009년에 비해 남자는 1.8세, 여자는 1.9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간의 평균 초혼연령 차이는 2.8세로 전년과 유사하다(표 1.1 참조). 이와 같이 한국 사회에서 초혼연령이 늦어지는 만혼은 장기간에 걸쳐 증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3) 혼인연령의 차이

남녀 간 혼인연령의 차이를 살펴보면 2019년 초혼 부부 중 남자 연상 부부는 66.8%, 여자 연상 부부는 17.5%, 동갑 부부는 15.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1.2 참조).

구체적으로 2019년 연령차별 혼인 비중은 동갑(15.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남자 1세 연상(13.3%), 남자 2세 연상(11.8%), 남자 3세 연상(10.7%), 남자 4세 연상(8.8%), 여자 1세 연상(8.0%), 남자 5세 연상(6.4%), 남자 10세 이상 연상(5.2%)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2 참조). 전반적으로 부부의 연령은 1~5세 남자 연상 및 여자 연하의 경우가 과반수(51%)를 차지하여 여전히 남자 연상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표 1.2 참조), 초혼 부부 중 남자 연상 부부 비중은 2009년 69.6%에서 2019년 66.8%로 2.8%p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여자 연상 부부는 2009년 14.3%에서 2019년 17.5%로 3.2%p 증가하여 점진적으로 여자 연상이 증가 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집

【표 1.2】 초혼 부부의 연령차별 혼인 구성비, 2009~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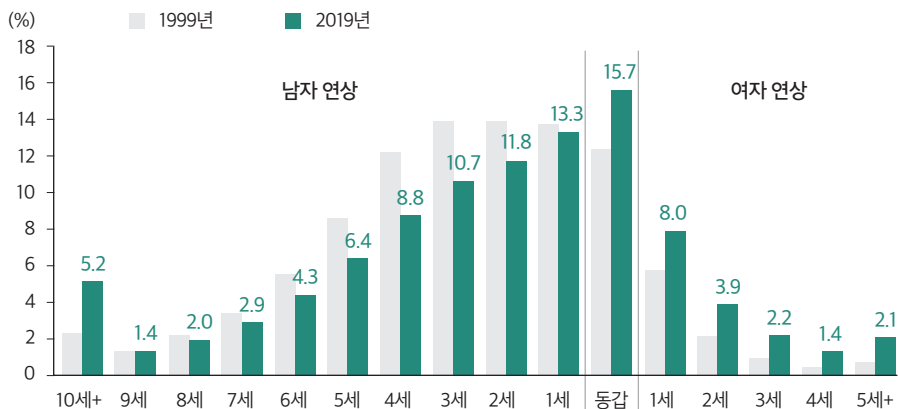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전년 대비 증감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남자 연상	소계	69.6	69.1	68.4	68.2	67.6	67.7	67.6	67.7	67.2	67.0	66.8	-0.2
	1~2세	26.4	26.1	26.3	26.3	26.1	26.2	25.7	25.5	25.3	25.1	25.1	0.1
	3~5세	27.7	27.3	27.2	27.2	27.2	27.1	27.2	27.0	26.6	26.4	25.8	-0.5
	6~9세	10.4	10.1	10.0	10.1	10.2	10.5	10.7	11.0	10.8	10.8	10.7	-0.1
	10세 이상	5.2	5.7	4.9	4.6	4.2	4.0	4.1	4.3	4.5	4.8	5.2	0.4
	동갑	16.1	16.0	16.4	16.2	16.2	16.1	16.0	15.9	15.9	15.8	15.7	-0.1
여자 연상	소계	14.3	14.9	15.3	15.6	16.2	16.2	16.3	16.3	16.9	17.2	17.5	0.3
	1~2세	10.6	10.9	11.1	11.3	11.6	11.5	11.4	11.4	11.7	11.8	11.9	0.1
	3~5세	3.0	3.2	3.3	3.4	3.7	3.7	3.9	3.9	4.0	4.3	4.4	0.1
	6~9세	0.6	0.7	0.7	0.7	0.8	0.8	0.9	0.9	1.0	1.0	1.1	0.1
	10세 이상	0.1	0.1	0.1	0.1	0.1	0.1	0.2	0.2	0.2	0.2	0.2	0.0
	동갑	14.3	14.9	15.3	15.6	16.2	16.2	16.3	16.3	16.9	17.2	17.5	0.3

\*연령 미상 포함

출처 : 통계청(2020). 2019년 혼인·이혼 통계.

【그림 1.2】 초혼 부부의 연령차별 혼인 구성비, 1999, 2019년



출처 : 통계청(2020). 2019년 혼인·이혼 통계.

안의 가장은 남성이며 연령 면에서 남자가 더 윗사람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성역할의 변화와 더불어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력이 더 커야 한다는 전통적 결혼관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관

#### 1)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 및 가족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주의, 자기결정권, 워라밸 중시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밀레니얼 세대는 개인의 권리를 우선하는 개인주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는 이전 세대가 지녔던 집단주의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집단주의는 개인의 욕구충족 이전에 가족이나 조직이라는 집단의 이해를 우선하는 것이다. 김혜경 외(2014)는 이러한 현상을 개인과 가족의 프레임에서 두 가지로 분석하였다. 즉 경제사회적 위기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개인화와 한국 사회에서 가족만큼 개인적 삶을 중요시하려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주관적 의미에서 개인주의의 형성이라고 하였다. 경제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세계금융위기라는 대내외적인 경기침체와 청년층의 취업난은 프리터족, 니트족 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고용 불안의 장기화는 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거나 유보하게 만들었다. 한편 우애적 가족가치관, 맞벌이 가구의 보편화, 일과 가사노동, 양육 및 돌봄 등의 현실적 상황의 어려움은 이들의 결혼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후기산업사회 이후는 사회체계의 일부분인 가족이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원의 역할 수행만 강조하던 과거와 달라졌다. 이보다는 가족관계와 개인의 행복이 중요해졌으며, 가족보다는 개인으로서 자기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는 경향이 커졌다.

둘째, 밀레니얼 세대는 학교 졸업 후 취업하여 결혼에 이르는 사회적 알람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스케줄에 따른 삶을 중요시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행복 가치관 보고서(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에 의하면 밀레니얼 세대는 현재 인생에서 가

장 추구하고 있는 가치로 ‘자기결정권’을 꼽았다.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 정도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족·주변인의 의견보다 자신의 만족을 우선으로 고려’(56.6%)하고, ‘사회나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방식보다 나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55.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고민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과거 ‘결혼적령기’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때가 되면 결혼을 선택하였던 것과 달리 결혼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진로와 행복에 도움이 되느냐를 심각하게 고민한다. 그 이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기에 결혼을 선택하거나 또는 선택하지 않는다. 더구나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든 세대에게 보편화된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는 서로 다른 다양성을 존중한다. 이 때문에 더욱 각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자기결정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일반적인 선택이었다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다른 선택을 하는 세대이다.

셋째, 밀레니얼 세대가 현재 인생에서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는 ‘균형’이 있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 즉 밀레니얼 세대에게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생활의 균형)은 기본적인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례로 최근 취업하고 싶은 상위권 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시퇴근과 워라벨의 조직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공사·공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0). 즉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정시퇴근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 개인의 스케줄을 존중하지 않는 유연하지 못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가정생활에 소홀한 삶을 거부한다. 종합하면 밀레니얼 세대는 가족이라는 집단을 위해 개인으로서의 삶을 희생하지 않으려 하며, 동시에 내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 2)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관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은 오늘날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성의 50.5%, 미혼여

성의 28.8%만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의 결과(미혼남성 60.8%, 미혼여성 39.7%)와 비교해서 양성 모두 감소(남성 10.3%p, 여성 10.9%p)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실제 결혼할 의향이 있는 미혼남성은 58.8%, 미혼여성은 45.3% 수준으로 2015년(남성 74.5%, 여성 64.7%)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 의향에 대한 응답이 매우 낮아졌다.

결혼할 의향이 없는 주된 원인에 대한 결과를 보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미혼남녀 공히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의 이유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생활의 비용 부담’(14.5%)이었으며,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9.1%),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9.1%), ‘소득이 적어서’(7.3%), ‘실업 상태여서’(6.4%) 등의 순이었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12.9%),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싶어’(11.8%),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11.2%), ‘소득이 적어’(5.6%), ‘결혼생활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봐’(5.6%),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상대적으로 미혼남성은 경제적인 이유와 구속되기 싫은 이유가 높고,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원하는 배우자상이 없거나, 자아실현의 이유로 결혼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남성에게 경제적 역할,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 등의 가정 내 역할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성역할 부담이 결혼 의향에 걸림돌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하여 미혼남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결혼 또는 출산을 계기로 일단 퇴직하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다시 일을 한다’에 남성은 45.7%, 여성은 30.5%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결혼하여 자녀를 가지지만 일을 계속한다’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각각 29.3%, 33.1%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여성이 아이를 기르는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일을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여성은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것에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미혼여성이 세 번째로 높게 응답한 것은 ‘결혼하지 않고 일을 계속한다’(14.3%)이고, 그다음이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갖지 않고 일을 계속한다’(12.8%)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미혼남성의 응답 비율은 각각 3.9%, 6.2%로 나타났다. 즉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자녀가 없는 삶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9.0%, ‘하는 편이 좋다’는 30.4%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비율은 전체 39.4%로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과 비교하면 ‘결혼을 해야 한다’(11.5%)거나 ‘하는 편이 좋다’(37.7%)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49.2%)가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절반(53.3%)이

### 초식남과 육식녀

초식남(草食男)이란 연애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외부 활동보다 그냥 방 안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남자를 의미한다. 육식녀(肉食女)는 연애에 적극적이고 고백 받기보다 고백하는 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 여자를 의미한다. 일본의 파트너에이전트(주)의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40대 남녀 중 초식남 성향을 나타내는 남자는 71.5%에 이르고, 육식녀 성향을 나타내는 여자는 37.7%이다. 일본은 1990년대 장기 불황 이후 연애를 기피하는 초식남이 늘어나면서 비혼과 만혼이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대경제연구원의 201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남성 중 초식남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43.1%이며 미혼여성 중 33.8%가 육식녀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한국 남성의 초식남화의 이유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업무 부담과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요인, 유약하면서 자기애가 강한 남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육식녀화의 이유는 사회 전반적으로 여권신장, 경제적 진출로 인한 자신감 증진 등으로 분석하였다.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2013). 결혼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초식남과 육식녀: 20~30세대의 결혼관에 대한 인식.

상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로 결혼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2015년 (44.4%)보다 높아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여기는 최근의 결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30~40대 초 기혼여성에게서 결혼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미취학 자녀의 돌봄의 어려움, 일·가정 양립의 갈등 등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된다.

### 3) 비혼과 동거

최근 결혼의 변화 추이와 결혼관을 종합해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결혼과 관련한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만혼, 비혼, 동거라고 할 수 있다. 만혼은 이상에서 살펴본 남녀 초혼연령의 증가현상이다. 여기에서는 비혼과 동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 비혼

비혼(非婚)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미 밀레니얼 세대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혼과 비혼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엄밀히 보면 다소 상이하다. 결혼여부를 기준으로 비혼과 미혼은 모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하지만 미혼(未婚)은 결혼한다는 전제를 두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이며, 비혼은 결혼을 원하지 않으며 결혼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혼과 비혼은 모두 제도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자발성 유무에서 차이가 난다. 현재까지 한국의 혼인상태와 관련한 통계청 조사는 제도적인 결혼여부만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미혼상태의 경우 자발성 유무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현재 통계청에서 분석하고 있는 한국의 미혼인구 중 일부는 향후 만혼을 포함한 결혼의 상태로 진전되기도 하고 일부는 계속 비혼을 유지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미혼인구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통계청, 2016), 미혼인구비율은 2010년 30.6%에서 2015년 31.3%로 증가하였다. 연령 및 성별 미혼인구를 보면 모든 연령에서 미혼인구비율은 증가하였고, 30대 증가율(2010년 29.2% → 2015년 36.3%, 7.1%p 증가)이 가장 높았다(표 1.3 참조). 30대

미혼인구의 경우 2000년 13.4%에서 2015년 36.3%로 2.7배 증가하였다(그림 1.3 참조). 성별에서도 남성은 40대(2010년 10.9% → 2015년 18.2%, 7.3%p 증가),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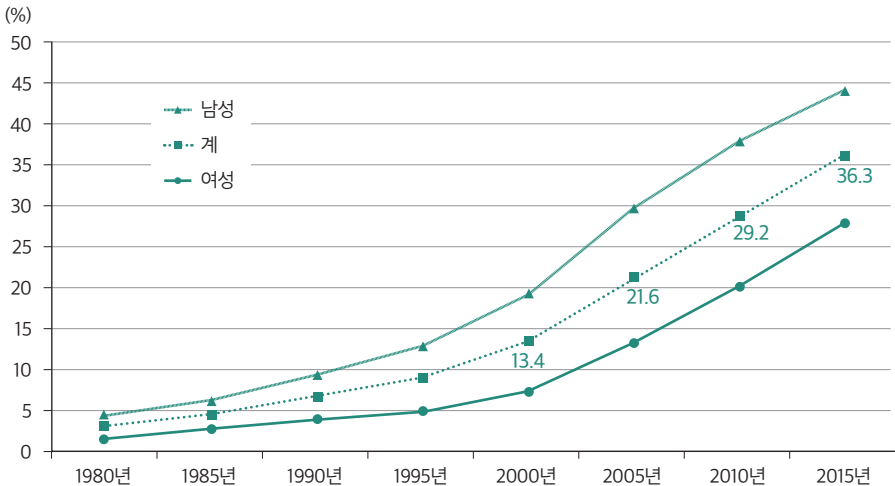
【표 1.3】 연령 및 성별 미혼인구, 2010, 2015년

(단위 : %)

연령	2010년			2015년			증감(%p)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30.6	35.6	25.8	31.3	36.0	26.7	0.7	0.4	0.9
15~19세	99.7	99.7	99.6	99.8	99.8	99.8	0.1	0.1	0.1
20~29세	86.8	91.8	81.3	91.3	94.7	87.5	4.5	2.9	6.1
30~39세	29.2	37.9	20.4	36.3	44.2	28.1	7.1	6.3	7.7
40~49세	7.9	10.9	4.8	13.6	18.2	8.8	5.7	7.3	4.1
50~59세	2.7	3.4	2.1	4.9	6.4	3.3	2.1	3.0	1.2
60~69세	1.0	1.1	1.0	2.0	2.2	1.9	1.0	1.1	0.9
70세 이상	0.6	0.4	0.6	1.0	0.8	1.1	0.5	0.4	0.5

출처 : 통계청(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주택 기본특성항목.

【그림 1.3】 성별 미혼인구(30대), 1980~2015년



출처 : 통계청(2016).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가구·주택 기본특성항목.

성은 30대(2010년 20.4% → 2015년 28.1%, 7.7%p 증가)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표 1.3 참조).

한편 육아정책연구소(2016)는 응답자의 현재 미혼상태를 자발적 결혼연기, 비자발적 결혼연기, 비혼으로 구분하여 비혼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미혼상태와 무관하게 가장 높게 동의한 항목은 '취미생활이나 여가를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자유롭다'이고, 가장 낮게 동의한 항목은 '주변에서 차별과 무시를 더 당하는 것 같다'이다. 반면 '외롭고 쓸쓸해 보인다'의 경우 자발적 및 비자발적 결혼연기 집단은 각각 50.6%, 56.7%의 동의 정도를 보였으나 비혼의 경우

###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결혼식 말고 비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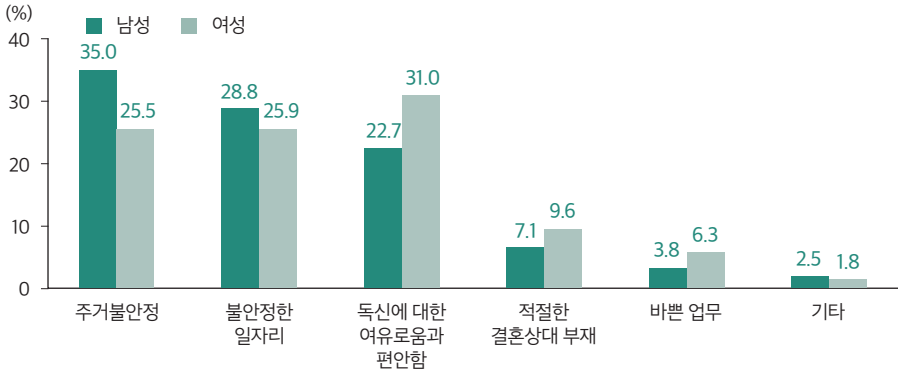
최근 밀레니얼 세대에서 경제적 및 사회적 이유로 결혼이 아닌 자발적 비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비혼이 증가하면서 비혼족 사이에서 가족과 지인을 초대해 자신의 비혼 의사를 전달하는 비혼식이 유행이다. 즉 자발적으로 혼인을 선택하지 않고 싱글 웨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싱글웨딩은 결혼을 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롯데멤버스 리서치 플랫폼 라인(2020)에 의하면 비혼식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20대가 83.9%로 가장 높았고, 30~35세가 76.4%, 35세 이상이 75.9%로 나타났다. 또한 비혼식 의향이 있는 경우 이유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는 '결혼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이유가 5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즐거운 추억 쌓기'가 25.4%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결혼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38.7%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즐거운 추억 쌓기'가 28.8%, '축의금 회수'가 21.6% 순으로 높았다.

한편 모기업에서는 최근 밀레니얼 세대의 구성원 비중이 많아지면서 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비혼식을 열어주고 있다. 또한 직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비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비혼식 후에는 10일의 비혼휴가도 지급하고 있다.

출처 : 엘페이 엘포인트(2020.3.5). 기업 HR(2019.7.12).

**[그림 1.4] 청년층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 정책 현안 보고서.

1/4(25.9%) 정도가 동의하였다. 또한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들면 후회할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자발적(73.0%)과 비자발적(77.9%) 결혼연기 집단은 70%대의 동의 정도를 나타낸 반면 비혼 집단은 33.6%가 동의하여, 미혼상태별 비혼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에 의하면 청년층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거 불안정(31.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불안정한 일자리(27.6%)였으며,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26.2%)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주거불안정(35.0%), 여성은 독신에 대한 여유로움과 편안함(31.0%)의 항목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주거 불안정 이유에서 남녀의 응답률에 큰 차이(9.5%p)를 보였다(그림 1.4 참조). 이는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신혼집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을 짐작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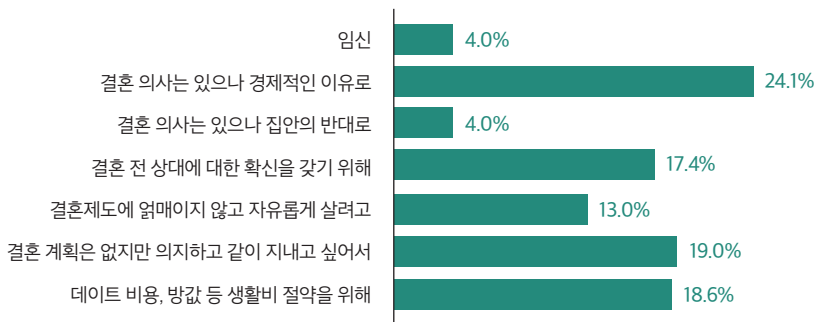
## 동거

듀오 휴먼라이프연구소(2019)의 미혼 대상의 혼인과 이혼에 대한 인식 보고서에 의하면 10년 후 혼인 유형의 1위는 ‘사실혼(동거)’으로 44.4%가 응답하였다. 동거(同居)란 법적인 부부관계를 맺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

회는 법률혼 외에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에 ‘동밍아웃(동거 커밍아웃)’에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2019)에 의하면 동거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 42.3%에서 2018년에는 56.4%로 증가하여 절반을 상회하였다. 동거에 대한 견해는 성별로 차이가 있어서 2018년 남성은 58.9%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반면 여성은 53.9%가 동거에 찬성하여 남성에 비해 다소 부정적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집단은 약 1/3(34.8%)만이 동거에 찬성하는 데 비해 20대(74.4%)와 30대 집단(73.2%)은 약 3/4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 동거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2016) 동거 경험자 4명 중 1명은 ‘결혼의사는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24.1%)로 동거를 선택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결혼 계획은 없지만 의지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서’(19.0%)가 높았으며, ‘데이트 비용, 방값 등 생활비 절약을 위해’(18.6%), ‘결혼 전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17.4%), ‘결혼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13.0%) 등의 순으로 높았다(그림 1.5 참조). 즉 동거의 이유는 경제적 및 심리적 측면과 관련되며, 특히 자유로움 추구가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 동거 선택 이유**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비혼 동거가족을 중심으로.